

마음 편한 농사 '농업인 특화보험' 으로

농식품부 가축질병치료보험·농협 농업인 전용 보험 등 잇따라 출시 정부 보험료 지원·가축 방문 진료·농기계사고 재해 보장 등 혜택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정 당국과 농협 등이 '농업인 특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합평·강진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을 도입했고 농협은 농업인 전용보험을 잇따라 출시했다.

8일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상품 시범지역에 합평군과 강진군을 최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축산농가에 수의사가 방문해 질병 진단·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

난해 11월 합평군과 충북 청주시에서 시범 실시했다.

합평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농식품부의 목표(10%)를 웃도는 17.8%를 보였다. 지난해 합평에서는 192개 농가가 7908두(전체 4만4000두)에 대해 해당 보험을 가입했다. 사업을 벌인 결과 보장질병 중 '송아지 설사·장염 치료'를 받은 사례(50%)가 가장 많았고 ▲번식우 난산 ▲송아지 폐렴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합평과 강진을 포함한 6개 지역이 사육하는 23만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4만두를 보험 가입대상으로 보고 있다. 강진

사육농가는 131개 농가로, 총 3만3000두를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께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올해 젖소 농가 부담 보험료는 10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하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과 전남총국은 최근 농업인 전용보험인 '리치팜생활안심보험'을 내놓고 지역 1호 가입행사를 열었다.

'리치팜생활안심보험'은 농기계사고 등 농작업 재해를 보장한다. 가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조 사고와 산불·누전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다.

임재성 전남총국장은 "농작업 재해는 산업 재해보다 발생률이 2배 높다"며 "안전 보건 체계가 부족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해남과 보성에서는 월동배추·쪽파(실파)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으로 선정돼 3년간 시범사업을 벌인다.

전남지역에서는 8월말 현재 6만8324개 농가에서 11만1554ha의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농가 중 3442개 농가는 총 8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에는 6만6919농가(10만4635ha)가 보험에 가입했고, 재해피해를 입은 3만297개 농가가 146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마늘(고흥) 난지형 가입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고 마늘 한지형(고흥)과 양파(합평·무안)는 9월16-10월16일 ▲월동배추(해남) 10월4일까지 ▲쪽파(실파) 10월25일까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병원 회장 나주 배 농가 방문 농협, 낙과 1500t 수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9일 태풍 '링링' 피해를 입은 나주 배 농가를 방문한다.

농협은 "이날 김병원 회장이 나주시 봉황면 배 농가를 방문해 피해복구 일손돕기에 참여하고 농작물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농협 전남본부와 지역 봉사단체 50여 명이 참여한다.

농협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접수된 농작물 손해보험 피해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577건에 이른다.

농협은 계약출하사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용 낙과(배 1000t·사과 500t)를 사들일 예정이다.

배의 경우 이번 태풍으로 30~50%의 낙과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나주배원협은 190t ▲신안 임해농협 70t ▲순천농협 50t ▲나주 봉황협 40t ▲나주 마한농협 40t 등을 수매한다.

추석명절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일시 2019. 9. 6.(금) 주관 농업광주지역본부, 관내농축협 후원 광주광역시



"우리농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광주지역 14개 지역농협과 광주축협 등은 지난 4~6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지원센터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추석명절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우수 특산품을 최고 30% 저렴하게 선보였다.

수협 호남권 물류센터 입찰 공고

수협중앙회가 나주혁신산단에 들어설 호남권 소비자 분산물류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수협은 '호남권 소비자분산물류센터 신축공사' 입찰내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하고 오는 11일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규모는 전기·소방·통신부문 19억2600만원이다. 나주시 왕곡면에 조성되는 호남권 센터는 1만여 ㎡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광주 2360t·전남 8만9060t 매입

농림부 23일부터 35만t 매입

정부가 올해 수확한 쌀을 대상으로 광주·전남지역 9만1420t 등 총 35만t을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미 34만t과 해외공여용 쌀 1만t 등 35만t을 농가로부터 매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비축미 가운데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 단위는 24만t을, 산물 형태로는 지난해

와 같은 10만t을 각각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지난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같다.

지역 매입 물량은 광주 2360t, 전남 8만9060t 등 총 9만1420t이다. 시도별 물량배정 기준은 ▲논 타작물재배사업 실적 ▲전년도 매입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행위 등으로 결정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대금은 벼 수매 직후 농가에 40kg 포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되면 연말에 최종 정산

한다. 매입 가격은 10월-12월 산지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한다. 지난해 포대벼(40kg) 매입 가격은 평균 산지쌀값(80kg 19만3568원)을 벼값으로 환산한 6만7050원이었다.

농림부는 정부양곡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 2개 이내로 지정한다. 이외 품종을 판매하는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코스피 3주 연속 상승 2000선 안착 미중 무역협상 재개에 증시 상승 전망 반도체 등 실적개선 가능 업종에 관심

코스피지수가 3주 연속 상승하며 2000선을 회복했다. 미중 양국이 10월 초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고 홍콩정부가 송환법을 공식 철회했다. 여기에 영국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 연기로 국제증시에 불안이 높이는 정치적 이슈가 완화되며 글로벌 증시도 동반 상승했다.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있다. '안될 것을 알면서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협상이 희망고문에 가까웠던 것 같다.

미중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을 위한 협상용만은 아니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갈등은 10년 넘게 진행됐는데 미중 갈등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왔고 1년 반 넘게 진행 중이다.

올해 7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제품 30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인상과 8월23일 중국의 보복관세에 이어 미국의 3000억 달러에 대한 추가보복관세 인상으로 최악의 상황에 치달던 미중 무역갈등이 잠잠해지며 다시 완화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까지 상당부분 진행됐던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은 비관세영역 등 이전에 결렬됐던 부문에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양국이 막상 관세를 올린 다음이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글로벌증시와 국내증시가 반등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하락하곤 했다. 희망고문일지라도 10월 초 미중 고위급회담이 취소되거나 결렬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2주 전 필자는 미중 무역분쟁, 한일관계악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 편입 등 악재로 지수 급락시에는 대형주와 지수레버리지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매수로 대응할 것을 권유했었다.

지난 2주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3.1%와 3.61% 상승했다. 코스피지수 상승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등(3개 종목이 전체순매수의 45% 이상 차지)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8월 이후에만 3조원 넘는 순매수를 보인 것이 가장 큰 힘이 됐다. 연기금이 기업가치대비 저평가 업종대표주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안호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취임 이후 국내 주식비중 확대보다는 대체투자자산 및 해외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주식의 지속적인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코스피지수 추가상승은 미중 무역협상재개와 홍콩사태 진정 등으로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1200선 이하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진전된다면 글로벌증시 상승과 함께 국내증시의 추가상승가능성도 있지만 저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라면 추석연휴전 고점매도로 박스권 대응도 가능해 보인다. 이번주도 지수반등에 따라 지수중심매매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개별종목 중심으로 순환매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보인다. 중장기 투자자는 하반기실적이 시장기대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2020년 실적도 지지효과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도체 화학 등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업종 대표주에 관심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